

주장사파라...

⑬ 만암 스님의 훈계



조태호



만암 스님(1876~1957): 전북 고창 生. 11세에 백양사에서 취암 스님에게 득도. 백양사 주지, 불교전수학교 교장 역임. 1947년 광주에 정광고등학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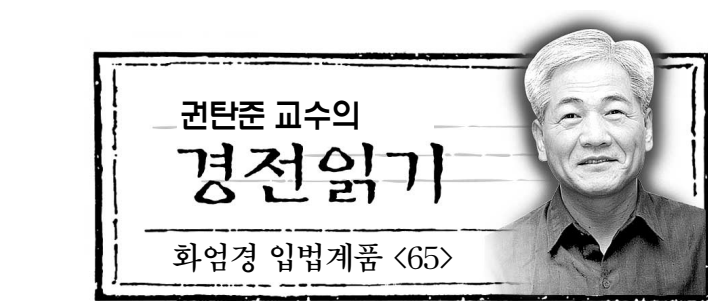
앞에서 견고해탈장자는 선재동자에게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정업해탈' 법문을 설하고 나서, 다시 그 성안에 있는 '묘한 달(妙月)'이라고 하는 장자를 소개하였다. 그 장자의 집에는 항상 광명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선재동자가 묘월장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그에게 예배하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자 묘월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깨끗한 지혜광명(淨智光明)'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다. 나는 다만 이 깨끗한 지혜광명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한량없는 해탈의 법문을 증득한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功德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묘월장자는 자기가 체득(體得)하고 있는 해탈의 이쁨만을 밝히고 있을 뿐으로 그 밖의 다른 설명은 없다. 장자가 '나는 오로지 이 깨끗한 지혜광명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알 뿐이다'라고 한 것은 그가 깨끗한 지혜광명을 얻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대비타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생의 특성이 무지와 어두움이라면 부처님의 특성은 지혜로움과 밝음이다. 중생이 겪게 되는 온갖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것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지혜 광명은 자기 자신의 무지와 어두움을 물리쳐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까지도 밝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회음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부처님의 성격은 비로자나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회음경 입법계품 <65>

묘월 장자의 법문

지혜 광명 언어 대비타행 실천

청정심과 진리만이 밝은 삶 영위

(vairocana)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광대무변한 지혜의 광명이 부처님의 본질로 되어 있다. 비로자나불은 일체법에 정각을 이룬 대지혜(大智慧)의 부처님이니, 비로자나(vairocana)라고 하는 말이 '빛을 두루 널리 비춘다(vai) 널리, 두루 두루 rocana 빛을 비춘다'고 하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光明遍照라고 번역함'이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지혜의 빛이 모든 것을 두루 비춘다는 뜻으로서 부처님의 본질이 모든 존재의 진실을 아는 지혜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혜는 우리들 중생의 근원적인 미망(迷妄)의 어두움을 비추어 없애는 광명으로 되어 작용하고, 그 광명은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펴서 고뇌를 없애주는 자비로운 작용으로 되어 전개하는 참된 생명이다.

장자의 이름이 묘월(妙月)인 것은 지혜 광명이 훌륭하게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

는 것이다. 이 장자의 자비로운 지혜 광명이 중생을 이롭게 해서 세간 중생의 미혹을 타파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혜의 광명은 깨달음의 지혜가 중생들의 무명(無明)의 암흑을 깨뜨리는 등 여러가지로 세상 만물에 이로움을 주는 작용을 한다. 깨달음의 지혜는 항상 어둠 속에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혜 광명이 비추는 곳은 언제나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간 속이다. 이러한 지혜가 이른바 근본적인 지혜(根本智)를 얻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여 다시 다양한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후득지(後得智)이다. 이 후득지가 방편(方便)을 성취하여 세간 속에서 훌륭하게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묘월이라는 명칭은 이 장자가 현실의 세간 속에서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깨달음을 잘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문

에서 '묘월장자가 머무르고 있는 집에는 항상 광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자의 생활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묘월장자가 체득하고 있는 '깨끗한 지혜광명'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도 세속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보살의 이상이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속에 물들어서 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한 중생들의 삶의 터전인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삶 자체를 비판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나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진리에 무지하고 어두운 것, 즉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밝고 힘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을 밝고 지혜롭게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아비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세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집착과 망념이 없고, 자비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에는 언제나 광명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묘월장자의 법문은 앞의 견고해탈장자가 설하는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정업해탈의 법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머무르고 있는 곳도 같은 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터즌 교리문답

'사사무애(事事無礙)'란 무엇인가요?

질문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구합니다. <회음경>의 법계연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사무애법계의 의미가 언설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사사무애법계라 이름 하나요? (D '강가')

답1: 이(이)는 이론, 이치, 진리를 말합니다. 사(事)는 일, 현실적인 것, 다양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론에도 원하고 일에도 능숙한 것을 이사무애(理事無礙)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 따로 진리나 일을 구별할 것이 없고 일이 곧 진리이며, 진리가 곧 일임을 깊이 아는 경지가 사사무애(事事無礙)입니다. 이것을 일과 일에 걸림없는 경지라고 하며 비로소 형식적인 공부가 끝난 단계입니다. (D '김성우')

답2: 사사무애법계는 모든 만물이 서로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이 융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만물은 겉모양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의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어느 절대적인 존재가 없이 서로 모여서 이루어진 한 형체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한 형태도 영원하지 못하고 곧 다른 형태로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D '법설')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39

불립문자(不立文字)-12

경전은 오랜 기간 동안 슬한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불교 경전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도 그렇고 이슬람 성전 꾸란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특히 언급된 종교의 신자 가운데에는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심지어는 경전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얘기라고 화를 내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튼 학술적으로는 그 얘기가 상식화되어 있다. 학문적인 진리가 반드시 종교적인 진리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학술적인 상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종교적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곰곰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상 어느 종교에나 경전의

앞에서 지지인심 경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의 구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했듯이, 이것은 경전 그 자체, 또는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말씀이기보다는 경전에 대한 태도, 경전 공부를 하는 태도에 시비를 거는 말씀일 터이다.

선사들이 보기에 경전에 담긴 가르침은 모두 결국 우리 자신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데로 귀착된다. 그것이 불교의 본령이라고 본다. 본령을 망각하고, 또는 뒤로 제쳐놓고 다른 신행에 몰두하는 것은 다 헛짓이요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았다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조차도 깨달음이라는 본령을 뒤로 제쳐놓고 한다면 헛짓이요 당장 패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하나를 짚대시하여 글자 하나를 좇아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른바 축자적(逐字的)인 태도의 전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문구 그 자체에 얽매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메시지의 취지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데 주력하는 입장도 전통으로 형성되어 왔다. 앞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불쾌해 하겠지만 뒤의 경우에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다.

선(禪)은 분명히 뒤의 경우이다. 그리고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教外別傳)이라는 구호를 통하여 그런 입장을 아예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였다. 전에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선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작년에 입적한 해인사 방장 해암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다. "말만대장경? 그거 깨진 사람에게는 다 통뎁개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가르침은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가?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아 있는 선지식에게서 직접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을 것을 강조한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현상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글보다는 말을 더 신뢰한다. 실은 말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이란 그럴 듯한 명제, 논리적인 설명, 조리를 설득 등을 뜻한다. 선에서는 그런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말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한다. 이른바 선문답(禪問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예이다. 언어에 구속이 된 의식의 흐름을 언어의 사슬에서 풀어내주는 언어가 선문답이다. <대승기신론>에 보면 인연견인(因言連言) 즉 말로써 말을 버린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취지를 담은 개념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가로

1. 사나리 유골을 넣고 쌓은 둥근 돌탑 5. 일흔 정치의 준말 7. 선가에 펼쳐 그 느낌을 말한 8. 국가 원수, 외교 사절, 군함이나 공적인 군대 등에 인정되는 특권 9.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한 곳 11. 사설법의 하나로 타인과 교과와 화복 등을 같이하는 실천행위 13. 지원하는 사람 14. 모아서 하나로 합침 15. 새로 한 영역에 대하여, 그 전에 한 번의 16. 써서 없애는 양 19. 신문·잡지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 읽고서 치르는 돈 21. 겹치는 고생 23. 전지 24. 싸움에 이긴 여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26. 인도의 용수(龍)가 지은 대승불교의 중심이 되는 논서 27. 전정 때위에 드는 비유.

세로

1. 정당하지 않음 2. 고려 초 승려로 풍수지리에 능함 3.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성행하였던, 예언서·신앙서 4.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 기관 5. 기원점을 점해당국인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 재판소에 내는 소원 6. 나라의 통치 기관을 움직이는 권력 10. 민간에서 사사로운 기록한 역사 13.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한 선거구 17.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자금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18. 비구·비구니·유바세·유바이를 통틀어 부르는데 20.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21. 이(理)와 기(氣)의 원리를 말하는 성리학의 이론체계 22. 신라의 학자 김대문(金大問)이 쓴 책 23. 두 무가 겹침 25. 두루 갖추.